

미래를 준비하는 변화의 주역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유수문 회장

우리협회는 LPG산업관련 선진제도 및 시스템의 조사·분석과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매년 수차례에 걸쳐 일본 LPG업계와 교류를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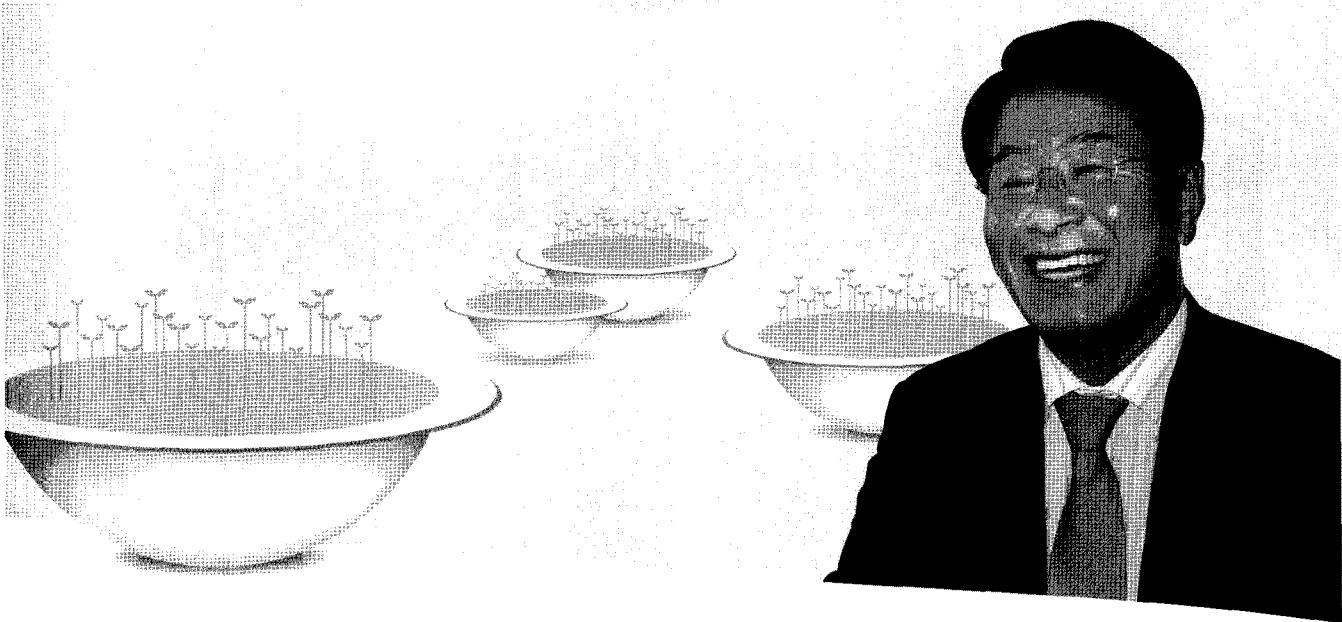
금년에도, 일본측의 방한미션단이 지난 3월5일 우리협회를 방문하여 한일LPG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6월에는 나라현LPG가스협회와 LPG가스보안방제회 회원들의 우리나라 LPG산업을 배우기 위한 방한이 속속 예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4월에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되는 제42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참석차 방일을 계기로, 일본의 LPG산업시찰 및 관계자간 교류 기회도 주어져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돌아보고 왔다.

일본 도착후 먼저, 남서쪽 추코쿠지방의 돗토리현에 위치한 LPG관련 회사인 돗토리가스산업(주)를 방문하였다.

동사는 1941년에 설립하여 석탄 판매사업을 시작으로 일반석유제품과 LPG, LNG, 고압가스판매에 이르기까지 돗토리현 지역내 에너지산업을 주도해 온,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대표적 에너지 회사다.

돗토리가스산업(주)는 1955년도에 LPG(프로판) 공급을 시작으로 1966년에는 자동차충전소를 오픈하였는데 이곳이 금번 방일에서 첫 번째 방문한 시설이다.



일본의 LPG자동차 보급대수는 한국의 1/8수준에 불과한 약29만대로 대부분이 택시이다. 그렇다보니 일본은 LPG자동차 240만대를 보유한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LPG충전 인프라(시설 현대화) 측면에서도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동일 캐노피 아래 LPG충전기와 CNG충전기가 함께 놓여있는 것이다. 얼핏 보아 간격이 5~6m가 채 안 되어 보였다.

충전소시설에 대해 설명해주던 관계자는 “일본은 eco-station이라고 해서 여러 연료를 한곳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꽤 있다.”며 “LPG와 CNG 충전을 위한 이곳도 그중의 하나다.”라는 말을 전했다.

우리측의 LPG충전소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그것들과의 겸업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LPG자동차 충전사업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던 차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일본LPG업체는,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개발·보급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망 정비를 위한 「에코·스테이션계획」과 지원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LPG충전소에 전기·CNG·메타놀 등 대체에너지 및 연료전

시론

지 등 신연료 공급시설의 병설 등에 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적인 변화를 시도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업계의 전향적 자세를 볼 때, 우리도 변화를 예측하고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가 분명 있었다.

자동차 충전소 인근에 위치한 (주)에너지센터-돗토리는, 2004년도에 지역 3개 회사가 각각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LPG의 공동충전과 공동배송을 실현시킴으로써 충전과 배송의 효율적 시스템운용을 통해 LPG배송센터의 전형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다.

공동충전소 관계자는 “이곳에서 충전한 LPG용기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교차배송을 억제시키는 한편 관리시스템을 최적화하였기 때문에 제반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해 했다.

우리나라도 2005년에 배송센터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려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다만, 이날 일본의 배송센터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프로판업계가 가야할 방향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돗토리지역 LPG관련 시설에 대한 견학을 마치고 남쪽으로 발길을 돌려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는 오카야마로 향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1965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제42회째를 맞이했다. 매년 한·일간 교차 개최되는 대표적 회의로서 양국 경제단체 및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역·투자·기술협력 등에 관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경제교류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회의에서 나는 클린에너지와 고효율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세계적인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와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미래를 먼저 준비해 가는 기업인들의 모습을 보았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이사장이자 동경대학 총장고문인 고미야마 히로시씨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향한 일본의 과제와 대처」 라는 주제로 에너지 절감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전 2050' 을 통해 2050년에는 에너지효율이 3배로 높아지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2배 증가, 그리고 물질순환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기술개발 등을 통해 연료소비량을 1/10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에코하우스 도입으로 난방에너지를 크게 줄여, 가정과 수송부문에서 8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각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 제안을 통해 일본전체로 약 30%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2050년 자급률 목표를 에너지 70%, 자원 70%, 식량 100%로 제시하였다.

특히, 구형 에어컨을 신제품으로 교체시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서 에너지 효율 제품을 과감히 교체할 것과 의식변화를 통한 개개인의 적극적인 실천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즉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방일기간 중 일본LPG산업 시찰에서는 미래의 존립과 성장을 위한 일본 LPG업계의 끊임없는 변화 시도와, 이를 통해 이루어낸 다양함이 인상 깊었다.

또한 한일경제인회의에서는 준비하는 기업만이 그 존재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아래 미래 지식정보를 찾아나서는 양국 기업인의 뜨거운 열의를 느꼈으며 그들이 변화의 주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한국의 LPG산업이 성장기도를 지나 정체내지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는 많은 신호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제 새로이 존립과 성장을 위한 사업자의 인식전환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LPG업계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자 개개인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선진시스템의 도입, 활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한일경제인간의 활발한 교류에서 보듯이 양국 LPG업계간의 교류·협력도 더욱 확대되어 미래 지속성장 가능한 길을 적극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협회 업무추진 실적

프로판사업팀

○용기재검주기 연장 관련 고법시행규칙 개정(5.31)

-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으로 연장

*프로판산업 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의 디딤돌 역할 기대

○LNG탱크로리 확대 저지 활동 지속

- 위성기지를 통한 LNG공급현황 조사 및 경제성 분석 후 지경부에 의견전달

○DME-LPG혼합연료 시범사업 추진

- 상반기중 시범사업자 충전시설 완료후 하반기부터 본격 보급

- 기존 LPG시설에 혼합연료 공급시 이상 유무, 경제성, 소비자 만족도 분석 등 전국확대 공급시 보완방안 마련 예정

○밸브제사용 허용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담당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

- 하반기 본격 추진을 위한 초석 마련 작업

부탄사업팀

○충전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이의신청 및 소송추진(연중 접수예정)

- 협회가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관련 소송 진행

○CNG승용차(택시)관련 문제점 및 건의사항 관계부처 제출(5.11)

- CNG용기 안전성, 충전 인프라 중복투자, 정부정책 방향 등 문제점 제기

- 일반승용차 CNG연료사용(구조변경) 제한 건의

- CNG연료에도 일반 수송용연료와 동등 수준의 유류세 부과 건의

○삼성토탈 LPG탱크 준공식 및 출하 기념식 참석(5.27)

- 삼성토탈, 5월부터 LPG수입 판매를 시작으로 제3의 수입사로 등장

○제1차부탄발전특별위원회 개최(6.4)

- 부탄산업의 증장기 발전 및 업계현안 문제 협의
- 에너지세계개편 대응방안 등

○한일LPG업계 간담회 개최(6.21)

- 우리협회와 일본LPG업계 LPG산업관련 간담회 내용
· 국내LPG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현황
· 정부지원 및 LPG업계의 노력
· LPG자동차관련 기술개발 현황 등

공제사업팀

○공제안내 팸플릿 제작 배포

○5말기준 협회 공제 가입현황

- 올들어 5월말까지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곳은 지난해말의 697개사에서 21개사가 증가한 718개사로, 가입율은 전체 충전소 1,821개사의 39.4% 차지
-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말의 가입율 39.2%보다 0.2%증가한 것으로 협회 임직원들의 가입활동 강화에 따른 결과임

(단위 : 사, %)

	충전소	구분	공제상품					
			총전	소비자보장	집단	영업	상해	화재
'09.12말	1,776	가입사	697	-	11	30	11	67
		가입율	39.2			1.7	0.6	3.8
'10.5말	1,821	가입사	718	15	10	37	12	68
		가입율	39.4			2.0	0.7	3.7
'10 순 증			21	15	-1	7	1	1

*소비자보장 및 집단공급 가입율은 가입대상충전소 파악 곤란으로 미상

용기재검사주기 연장 관련 고법시행규칙 개정안내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우리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고법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안내해드립니다.

LPG용기 재검사 주기 연장이 20년 미만 용기는 5년, 20년 이상 용기는 2년(단, 초회 검사후 연장)으로 일본과 동일하게 개정되어 5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은 협회가 최근 몇 년간 중점 추진한 사항이었음에도 관련 업계간 첨예하게 엮힌 이해관계로 인해 진통을 겪은바 있으나, 최근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여 시행이 확정되었기에 해당 개정법령을 별첨문서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용기재검사 및 폐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재검주기 연장관련 고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 시행 -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으로 연장 -

개정 주요 내용

1) 재검주기 :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

20년 미만 용기 ('90. 6월 이후생산)	20년 이상 용기 ('90. 5월 이전생산)
① 충전기한이 '10년 5월 이후인 용기 ⇒ 기존 충전기한에서 연령별 재검주기를 5년으로 자동 연장 ex) 충전기한이 '10년 5월까지인 용기중 직전 검사가 -초회 검사 일 경우 (4년) → (1년 연장) : '11. 5월까지 -15년 미만 일 경우 (3년) → (2년 연장) : '12. 5월까지 -20년 미만 일 경우 (2년) → (3년 연장) : '13. 5월까지 자동 연장됨 ② 충전기한이 '10년 4월 이전인 용기 ⇒ 시행일 당시 미검용기로써 재검후 5년으로 연장	· 시행일 이후 재검주기가 도래 또는 시행일 이전 만료된 경우 모두 재검사후 2년으로 연장 ⇒ 재검후 2년으로 연장

2) 사용연한제 도입 : 경과년수 26년 이상용기 폐기

- 37개년에 걸쳐 단계적 시행, 해당용기는 정해진 기간까지 사용후 폐기

· 1차년도('10.5.31~'11.5.31) : 28년 이상용기(~ '83년 5월 이전 생산용기)

- * 28년 이상용기의 폐기는 '11. 6. 1
- 2차년도('11.5.31~'12.5.31) : 27년 이상용기('83. 6월 ~ '85. 5월 생산용기)
- * 27년 이상용기의 폐기는 '12. 6. 1
- 3차년도('12.5.31~'13.5.31) : 26년 이상용기('85. 6월 ~ '87. 5월 생산용기)
- * 26년 이상용기의 폐기는 '13. 6. 1
- 4차년도('13.5.31~) : 경과년수 26년이 도래하는 월에 해당용기 폐기

3) 시행일 : '10. 5. 31일

참고 고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요지

- 고법 시행규칙
- 별표 2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기의 종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재검사 주기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	500L 이상	5년 마다	2년 마다	1년 마다
	500L 미만	5년 마다		2년 마다
비고 7.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 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재검사를 받는 용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조 후 20년이 지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폐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기는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 후 28년 이상 지난 용기: 2011년 5월 31일까지
 2.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 2012년 5월 31일까지
 3. 제조 후 26년 이상 지난 용기: 2013년 5월 31일까지

저렴한 공제로! 공제수익은 100% 충전사업자에게 환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협회 공제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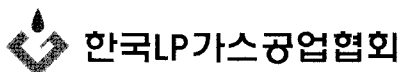


| 가입시 필요서류 |

1. 전년도 매출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서, 손익계산서 중 1개
2. 탱크(벌크)로리 충전소 명의 보유시 : 자동차등록증
3. 탱크(벌크)로리 미보유시(용차 이용) : 수송비 계정별원장



보험 계약시에는 매출액 등에 대해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일부 보험사 모집인의 설명만 듣고 사실과 다르게 가입하실 경우,
추후 사고발생시 보상금 지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5-283) 서울시 강남구 대치3동 27-13
TEL : (02)3411-5111~5 / FAX : (02)3411-5118
www.lpgas.or.kr

협회 공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하고도 만족한 보상을 통하여
충전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협회 공제 가입은 협회가
LPG산업 발전 및 충전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1. 다양한 공제

가스사고배상책임(집단공급)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해공제,
화재공제, 소비자보장책임공제



2. 낮은 요율

공제회는 가스사고배상책임(충전소)
요율을 '07년부터
매년 약 20%이상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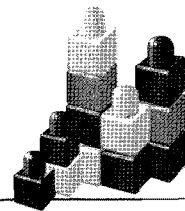


3. 최상의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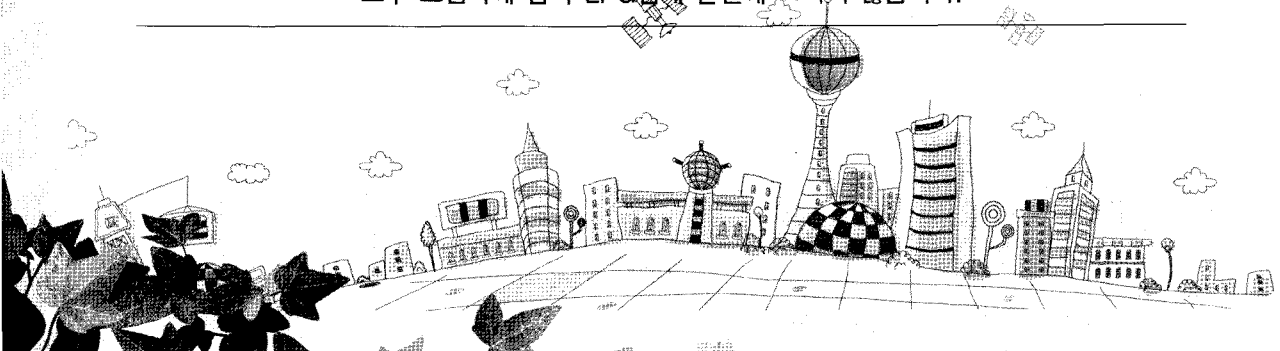
차티스(구 AIG) 및
한화손해보험사에 재보험 가입을
통해 완벽한 보상 유지

공제가입에 따른 다양한 혜택

- ① 공제 기본요율은 보험사 대비 약 5~10% 저렴
- ② 매년 납입한 공제료의 10%를 적립하여 재계약시 할인
- ③ 안전관리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0~40% 추가 할인
- ④ 다수 공제상품에 패키지 가입시, 각각 10% 추가 할인
- ⑤ 공제수익은 모두 가입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시 사용



협회의 공제수익은 LPG수요개발, 경쟁력강화, 시장확대 등
충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00% 사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사에 가입시의 보험수익은
모두 보험사에 남아 LPG업계 발전에 쓰이지 않습니다.



LPG충전사업 가족 장학지원을 위한 포스터 현상공모전

한국LPG가스공업협회

공모개요

한국LPG가스공업협회에서는 LPG충전사업 가족 장학지원 및 녹색성장의 주역인 LPG 경쟁력 강화·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스터 현상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수제

- LPG사용을 유도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LPG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인식제고를 위한 내용
- LPG의 친환경성 및 효율성을 표출한 내용

공모대상

- 전국 충전사업자, 종사자 및 가족

작품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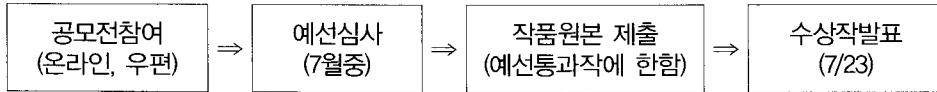
- 4절지(39.4 × 54.5cm)
 - 직접 그린 작품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하거나 스캔하여 업로드, 또는 e-mail 송신
 - 심사가 가능한 화질의 jpg, jpeg 파일로 제작, 파일크기는 2M이하
- 컴퓨터 그래픽 작품 가능
 - 해상도 300dpi

시상내역

구분	시상수	시상내용
대상	1편	100만원
금상	1편	50만원
계	2편	150만원

참가신청

○ 공모절차(예정)



- 작품은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
- 예선통과작에 한하여 발표 후 3일 이내에 작품원본 및 데이터 CD를 협회에 제출
- 작품 원본 제출시 작품을 보드에 부착 (우드락 등)

활용

-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충전장(디스펜서) 인근 기둥에 부착하여 판매 홍보 - LPG충전소에 1부씩 배포(필요시 추가)
- 수상작 및 수상자에 대해 추후 전문신문 기사화 및 협회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협회 각종 광고에 활용

유의사항

- 협회로고 등 참고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규격 외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온라인접수 작품은 반드시 실물과 같아야 하며 실물과 일부라도 다를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심사결과 시상기준에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변경 될 수 있음
- 응모 작품의 저작권은 협회에 귀속됨
- 응모작은 표절, 도용, 모방작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당선된 이후라도 무효처리 및 상금 회수(초상권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

접수 및 발표

- 기간 : 2010. 6. 21(월) ~ 7. 17(토)
- 접수
 -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홈페이지 www.lpgas.or.kr (커뮤니티)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7-13번지 2층 우135-834
 - 이메일 rarrarr@hanmail.net
 - ※ 신청서 첨부 접수(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전화 02)3411-5111~5 / 담당 장수현 대리
- 발표 : 2010. 7. 23(예정) 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